

# 경쾌한 랩으로 듣는 성철 스님 법문

백련문화재단 음악법문 CD '성철 이야기' 발매

성철 스님의 법문이 신나는 랩, 퓨전음악, 악곡, 서정 가곡 등으로 편곡된 2장의 CD에 담겼다. 백련문화재단(이사장 윤희택)은 성철 스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성철 스님 육성과 함께 듣는 음악법문 앨범 '성철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번 음반은 출가승 오도송 열반송 등 성철 스님 일대기를 구성한 곡들과 함께 중간 중간에 스님의 법문을 음악으로 표현해 발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장 윤희택 스님은 "성철 스님 기념관 설계를 하면서 스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작을 하게 됐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기획과 음악감독을 맡은 불교음악가 윤소희 씨는 처음에는 단순하고 소박한 실내 음악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 받았다. 하지만 윤 씨는 1년여 작업 끝에 다양한 현대음악을 총망라한 색다른 두 장의 CD로 탄생시켰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지식인 성철 스님의 큰 뜻을 대중들에게 좀더 잘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윤 감독은 "막상 작업을 시작하고 성철 스님에 관한 자료들을 쫓겨보니 큰스님의 대장부 같은 성품과 사후후를 표현하기에 내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로 남성 작곡가들을 통해 이러한 성량의 부족함을 채워 보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전통음악에 바탕을 두되 범패에서 더 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배분하여 출가승·오도송·열반송·회향 그리고



백련문화재단은 성철 스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성철 스님 육성과 함께 듣는 음악법문 '성철 이야기'를 내놓았다. 사진 왼쪽은 기획과 음악감독을 맡은 윤소희 감독, 사진 오른쪽은 앨범 표지.

1986년 봉축법어 랩으로 편곡  
성철 스님 삶 거문고 선율로 표현  
CD 2장에 총 30곡 수록돼

법문을 노래할 곡을 남성 작곡가들에게 맡기고, 윤 감독은 기념관 건축 구조에 어울리는 실내악과 엮음을 만들었다. 연주가는 비구 스님·비구니 스님·아이들과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부대중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8곡이 수록된 CD 1은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성철 스님이 갖는 법법의 정통성을 상징해 영산회상의 주제를 이어받은 '퇴공회상'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성철 스님의 '출



가승'을 노래하고, 출가와 더불어 내면의 불성이 깨어남을 상징하여 '당신의 생일입니다' (1986년 봉축법어)라는 법문을 랩으로 펼친다.

'교도소에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숲집에서 웃음을 파는 엄숙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이렇게 랩으로 시작하는 '당신의 생일입니다'는 가사를 두고 윤 감독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작곡가께서 초반에는 가사를 빼자고 했어요.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이 부분 또한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스님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대로 넣기로 결정했죠. 작업을 끝내고 보니 가장 신나는 곡이 되었습니다."

CD II는 작곡가 조광재 선생이 작곡한 오도송과 성철 스님 '백일법문'의 감동과 메시지를 소프라노 정을 스님의 음성으로 실었다. 이어서 성철 스님을 시봉하던 일화를 원택 스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철 스님과 나'라는 익살스럽고 유쾌한 악곡도 이어진다. 이어 범패로 신비롭게 풀 열반송과 거문고 가락으로 성철 스님을 표현한 '그 날'이 마지막 곡으로 담겼다.

윤 감독은 "음반을 세계 여러 아카이브즈에 보낼 계획이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손을 내밀고 있다. 이로써 성철 스님의 정신세계, 한국이 놓은 정신적 지도자 성철 스님의 법향이 지구촌 곳곳으로 전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sh@hyunbul.com

## 시대와 교감하는 불교 미술 한자리에

리움 '개관 10주년 기념전...12월 21일까지

대방광불화엄경·아미타삼존도 등 동서고금 초월한 작품 한자리에

삼성미술관 리움이 '개관 10주년 기념전 : 교감(Beyond and Between)'을 12월 21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리움 개관 이후 처음 열리는 전관(全館) 전시로 한국 고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 동서고금을 초월하는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시대교감, 동서교감, 관객교감, 관객교감, 세션을 나누어 관람객들을 찾아가는

한국 고미술 상설 전시실 'MUSEUM1'에서는 '시대교감(時代交感)'을 주제로, 우리 고미술의 대표적 소장품과 현대미술 작품을 함께 전시, 시간을 초월한 예술작품 간의 교감을 시도한다. 특히, 이곳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이르는 불상들과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국보 196호)', '아미타삼존내영도(국보 218호)' 등의 불경과 불화가 전시된다.

대방광불화엄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으로 두루마리 형태이며 크기는 세로 29cm, 가로 1390.6cm이다. 이 책은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법사가 간행한 것으로 신라 화엄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다. 신라시대 문헌으로는 유일한 것이며, 당시 불교뿐 아니라 서지학·미술사 등에



아미타삼존내영도(국보 218호)

서도 자료적 가치가 크다. '아미타삼존내영도'는 관음·지장이 협시한 독특한 형식의 삼존도는 구도 면에서도 내영도로서의 효과를 성공적으로 묘사한 걸작품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교감전은 한국의 국보급 고미술부터 서도호, 문경원·전준호의 신작, 올라퍼 엘리아슨, 데미안 허스트, 나와 코헤이, 장샤오강 등 세계적인 현대 작가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총 23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20m 높이의 나선형 계단 중앙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연결한 최정화의 연금술이 상투리에처럼 광채를 발하고, 고미술 전시실에서 현대미술 전시실로 향하는 계단에는 덴마크 작가 올라퍼 엘리아슨이 거울·발광다이오드 등을 활용한 빛조각 '중력의 계단'도 관람객들을 신비로운 빛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

정혜숙 기자



'리움 개관 10주년 기념전'에서는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의 대표적인 불상, 불화 등 불교미술 코너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 미디어아트 국제전시 '미디어시티서울'

9월 2일~11월 23일까지 서울 시립미술관서

미디어아트 국제전시인 서울시립미술관(관장 김홍희)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가 9월 2일~11월 23일까지 열린다.

올해 주제는 '귀신·간첩·할머니'로 영화감독 박찬경이 예술감독을 맡았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세 주제는 식민지 시절 겪은 아시아, 냉전의 역사, 여성의 억압과 고난을 함축하고 있다. '귀신'은 유령의 호소를 통해 굴곡이 심했던 아시아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간첩'은 아시아가 식민시대와 냉전의 경향이 심각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키워드다. 특히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 '간첩'은 간첩사건을 비롯 민중화 운동, 금기, 지적감정, 은행 전산망 해킹, 감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른다. 정보의 흐름과 미디어에 관한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귀신과 간첩

의 시대를 건너며 살아온 증인이다. 위안부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아픈 역사의 한 가운데 여성이 있음을 말한다.

미디어시티서울 2014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과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동시에 열린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등 선보여  
티베트 순례 담은 영상 '코라' 주목

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영화, 사진, 회화, 조각을 위주로,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영화와 비디오, 설치미술을 위주로 선보인다. 특히, 이번에 상영되는 자오싱 아서 리우의 '코라'는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 출발해 고원을 지나 궁극적으로는 에베레스



이번 서울시립미술관 비엔날레에서 상영되는 '코라'는 티베트 카일라스 순례길의 여정을 담았다.

트 산과 카일라스 산에 이르는 여정을 담아 내 눈길을 끈다. 이 여행 중에는 나홀간의 코라(kora)가 포함되어 있는데, 코라는 카일라스 산 5000~6000미터 사이 주변을 순례하는 과정이다. 순례자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독특한 산의 풍경과 자연에 대한 경외, 성스러운 영적 공간을 보여준다. 외로운 산행 속에 서서히 펼쳐지는 방대한 전자음악과 현악기 소리가 점차 관객들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영상이 자연 경관의 대규모

심포니를 드러내는 한편, 티베트 불교 전통에 따른 부드러운 기도의 종소리가 잠들어 있는 정신을 일깨운다. 때로는 자연의 침묵이 강박적인 긴장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적인 교감으로 다가와 깊은 영적 법염(法眼) 상태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바위 사이에서 휘날리는 불자의 깃발은 모든 이들의 복을 바라는 티베트 불자의 기원을 보여준다.

정혜숙 기자

## 홍천 백락사, 환경설치 미술전 개막

세계 7개국 예술가 40명 참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백락사 환경설치 미술전이 9월 13일까지 열린다. 국내 유일의 사찰 환경설치 미술전으로 올해 9번째를 맞이한 2014 환경설치미술전은 백락사 일원과 홍천군 무궁화 공원 등지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와 독일, 몽골,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세계 7개국 40명의 설치 예술가들이 참가해 바위와 돌, 풀, 나무, 천 등을 활



환경설치 미술전 강희준 작가 작품

용한 설치 조각 작품을 백락사 현지에서 제작, 전시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대원문재현 선사님 67권의 저서 출간!**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라 할 것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가불>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흠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종락)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주)**

“산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광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하차 시 유용합니다.
-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배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www.kw-tec.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